

문제 19. 정답 ①

㉠ : ㉡의 관계와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지문에서 고르는 문제 유형이다.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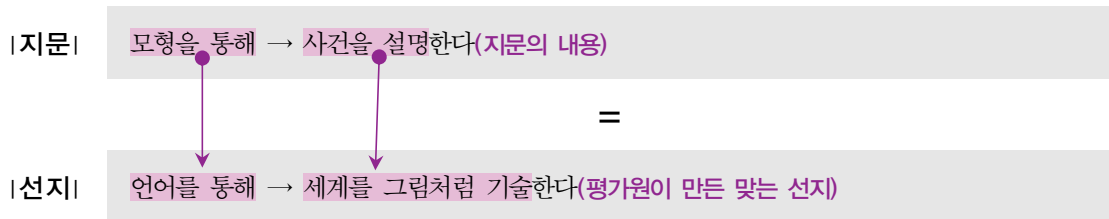
㉠. 언어 : 세계(유형 6. 사례 연결)

위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12 수능 [17-20]번 지문 2문단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한다’와 ‘그림을 통해 세계를 기술한다’는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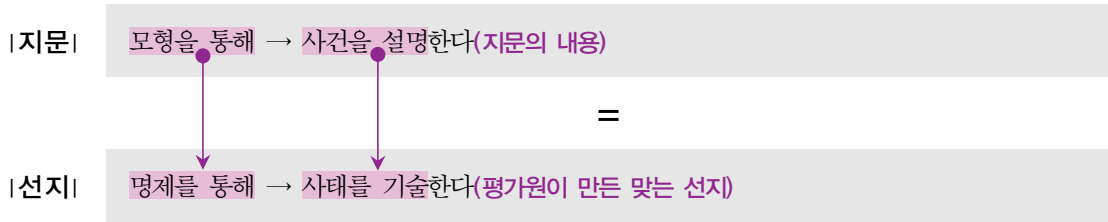
㉡. 명제 : 사태(유형 6. 사례 연결)

위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12 수능 [17-20]번 지문 3문단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한다’와 ‘명제를 통해 사태를 기술한다’는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문제 20. 정답 ④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④ ㉠는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유형 9. 지문과 보기의 대응)

위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12 수능 [17-20]번 지문 4문단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위의 지문 내용은 ‘형이상학적 내용은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다’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기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2012 수능 20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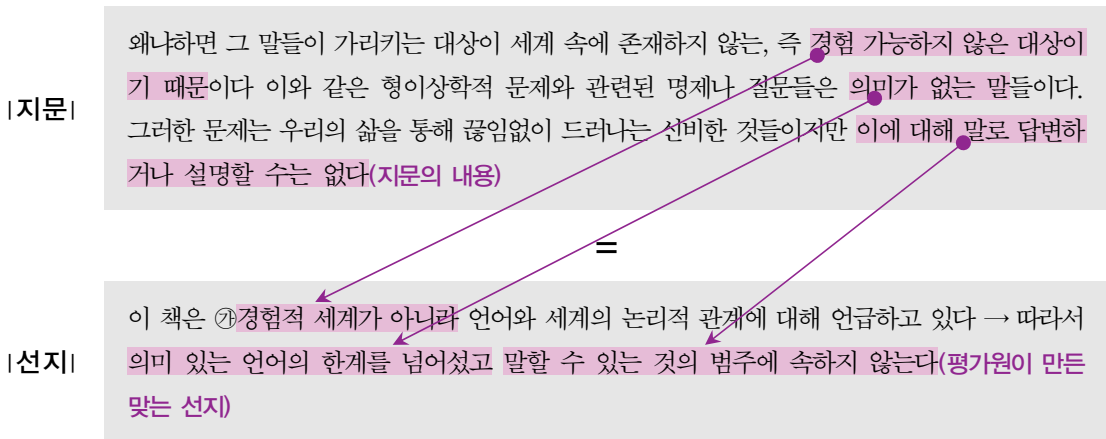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비교, 대응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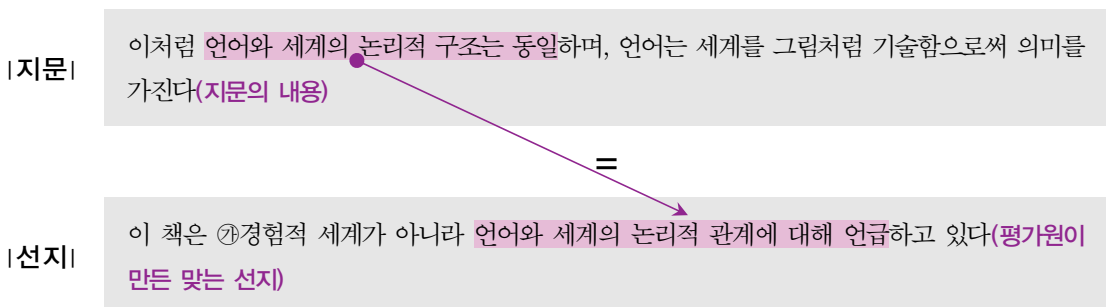
지문의 내용 : 형이상학적 내용은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 따라서 의미가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보기의 내용 : 이 책의 내용은 ㉔ _____ 이다 → 따라서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은 ㉔의 내용에 어떤 말이 들어와야 하는지 감이 잡히는가? ㉔의 내용엔 ㉔번 선지와 같이 ‘이 책은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라는 말이 와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 책은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선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지문 내용과 대응한다.





평가원이 만든 틀린 선지

⑤ 가)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 1, 명백히 틀리다는 판단이 가능한 선지)

위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12 수능 [17~20]번 지문 4문단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위의 지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적 내용을 의미 없는 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⑤번 선지와 같이 자신의 저서에 형이상학적 내용에 대해서 다뤘을 리가 없다.

